

2020년대 여성 SF 작가들의 대안 유토피아- 소수자의 공생

-김초엽, 천선란, 정세랑, 윤해연, 이글희 소설을 중심으로-

최애순(계명대학교) / elisha94@hanmail.net

1. 선택적 유토피아 공간의 ‘섬’

- 한정된 공간으로의 유토피아 ‘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홍길동전』의 율도국, 『허생전』의 섬, 『완전사회』의 비커츠 섬
- 특정 계급, 특정 계층에 국한된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노예와 여자가 있음. 『홍길동전』과 『허생전』은 도적들을 데리고 들어간 섬. 『완전사회』는 여인들의 공화국
-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 실현 불가능함
-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의도와 의지의 산물: 특정 누군가를 위한 유토피아,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2. ‘섬’에서 벗어나 보편적 유토피아 지향

-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지구 ‘밖’의 이상적인 유토피아 마을- 그러나 대립과 혐오가 난무하는 지구로 떠난 순례자들은 그곳에 남기로 결정함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실버타운, 테마파크, 최대의 로봇생산지가 폐허로 됨. 동시에를 세우나 둘을 없애고 밖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완전함을 택함
- 무국적성, 무경계성
- 무계급성, 무혈통성- 정세랑의 「7교시」: 이기심과 공격성이 강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고 이타심 많은 유전자를 모아 둔 ‘공동체 유전자’ 선택

순례자들은 누구를 사랑했을까. 그들은 남미에, 서부 미국에, 인도에, 모두 흩어져서 살겠지.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이건 순례자들은 그들에게서 단 하나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겠지./ 그리고 그들이 맞서는 세계를 보겠지. 우리의 원죄.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릴리가 만든 또 다른 세계. 가장 아름다운 마을과 가장 비참한 시초지의 간극. 그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누군가와 함께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순례자들은 알게 되겠지.(「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53면)

“둘을 없애는 거야. 그냥 모두가 밖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 불완전한 채로. 그럼 그게 진짜 대안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길 거야.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뭔가를 해야 해. 현상 유지란 없어. 예정된 종말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나마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야.”(『지구 끝의 온실』, 227면)

3. ‘정상성(定常性)’의 무규정, 시원으로 되돌리기: 현실에서 가능한 대안 모색

-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정상성에 대한 질문
- 김초엽의 「공생가설」- 인간성에 대한 질문
-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보그나 휠체어가 되는 것보다 지구의 인식이 바뀌기를 소망
- 천선란의 「나인」-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알았던 승택과 처음에는 인간인 줄 알았던 나인의 삶- 인식의 차이

- ‘~성’으로 규정한 것들의 시원화(초기화)
- 천선란- 인간이 비주류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
장애를 제거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보다 인식의 전환이 중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
대신 인식의 전환으로 현실 가능성의 대안 유토피아

하지만 만약 공생의 대상이 생물이 아니라면 어떨까? 지구에서도 유래하지 않은 것, 수만 년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지구 밖의 어느 행성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윤리적 주체로 가르쳐왔다면. 인간을 비인간동물과 구분하는 명백한 특질들이 사실은 인간 밖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외계성이었군요.”(『공생가설』, 129면)

세상이 조금만 더 남들처럼만 대해준다면 은혜는 사이보그 따위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몇천만 원을 웃도는 기계 다리 부착 수술보다 더 필요했던 건 인도에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와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 횡단보도의 여유로운 보행자 신호, 버스와 지하철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탈 수 있는 안전함이었다. 휠체어를 끌어주는 휴머노이드나 사이보그 다리가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구가 너무 많이 바뀌어야 했다.(『천 개의 파랑』, 97면)

4. 주류 인간 없이 소수자들의 공생- 식물, 동물, 로봇, 사이보그의 공생

-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 SF: 소수자(식물, 동물, 로봇, 사이보그(장애인이면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주체인 SF:
윤해연의 「빨간 아이, 봇」
이글희의 「로봇 벌 알파」

- 윤해연과 이글희의 SF에서 인간에게 버려진 로봇이 주체가 되고, 로봇 벌이 진짜 벌과 협력하는 공생 관계
- 공생, 협력하는 관계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왕따가 될 수 있음
- 포스트휴머니즘의 세계: 인간이 주류가 아닌 세상
-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 주류가 비주류가 되는 세상

빛은 공평하게 지구에 닿았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식물, 망가진 로봇, 빨간 피부 아이 그리고 죽어가는 땅에도 축복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빨간 아이, 봇』, 163면

“정신 차려. 아직도 모르겠어? 꿀벌이 없어져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 우린 꿀벌이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꿀벌이 계속 살아서 수가 많아지면 우린 쓸모없어져.”(『로봇 벌 알파』, 103면)

“같이 지낼 순 없을까? 꿀벌이랑 글로비랑 함께 말이야.”(『로봇 벌 알파』, 104면)

5. 2020년대 여성 SF 작가의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개념 전환

- 1) 선택적 공간 ‘섬’에서 벗어나 무국적, 무계급적 (우주적)의 보편적 유토피아 지향
- 2)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함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적 유토피아- <어떤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질문을 전환